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4호 【루계 제24982호】 주제104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해 나가 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신천박물관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 섰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김기남 동지, 리제일 동지, 김여정 동지, 량철성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인민무력부 지휘성원들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 신천박물관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과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신천박물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할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박물관의 위치를 몹소 잡아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설계와 형성안으로부터 미술 작품창작과 내부전시, 구조와 안내표식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였을뿐아니라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직관성과 생동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은 계급교양의 거점이고 복수심의 발원점이며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날날이 발가놓는 력사의 고발장이라고 하시면서 신천박물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가 제놈들이 저지른 죄행을 감추어보려고 아무리 교활하게 놀아대도 이 땅에 남긴 피의 흔적은 절대로 지울수 없다고 하시면서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

시있는 인민군대에 건설을 맡겨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예로운 전투명령을 심장깊이 새긴 군인건설자들은 올해 2월 26일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이 따로없는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방대한 건설과제를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해

결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이 일떠선 신천박물관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미제를 타승한 진승철을 계기로 신천박물관이 새로 일떠선것은 당의 명도밑에 반제반미투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과 불굴의 의지의 힘있는 표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 연혁소개실, 총서관, 전시실, 룡화방영실, 종합강의실, 전 신천군당방공호, 화약창고, 복수결의모임터 등 신천박물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이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수호전,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천만군민의 보복열기를 더해주는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본판과 2판, 외부참관지로 갈라져있던 신천박물관을 사백여터니모, 백둘어터니모, 애국자들도, 화약창고가 있는 원암리 밤나무골에 새로 건설하고 주변에 전신천군당방공호, 복수결의모임터, 휴식터, 주차장까지 꾸려놓은 결과 박물관 운영과 참관을 보다 원만히 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박물관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이 신천 땅에서 감행한 야수적만행자료들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전시해놓음으로써

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반미대결전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정세는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특히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라고 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